

매년 연말 버터 부족현상의 원인은

■ 주목할 점

- 케이크의 수요가 높아지는 크리스마스시즌을 앞두고 케이크의 재료인 버터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음
- 버터의 소매가격은 최고치를 경신할 정도로 일본정부는 사상 최대 규모의 추가 수입으로 버터 확보를 서두르고 있음
- 원유의 유통을 둘러싼 구조적인 문제에 있음

■ 30 ~ 40 % 나 최저가

- 농림수산성은 이번 겨울에 일어날 버터의 공급 부족현상을 피하기 위해 올 5월에는1회 수입규모로는 사상 최대인 1만톤의 추가 수입을 결정 하였음
- 11월24일 일본정부는 년도 내에는 버터의 수입이 급증할 때 관세를 올리는 ‘세이프가드’의 적용을 하지 않기로 의결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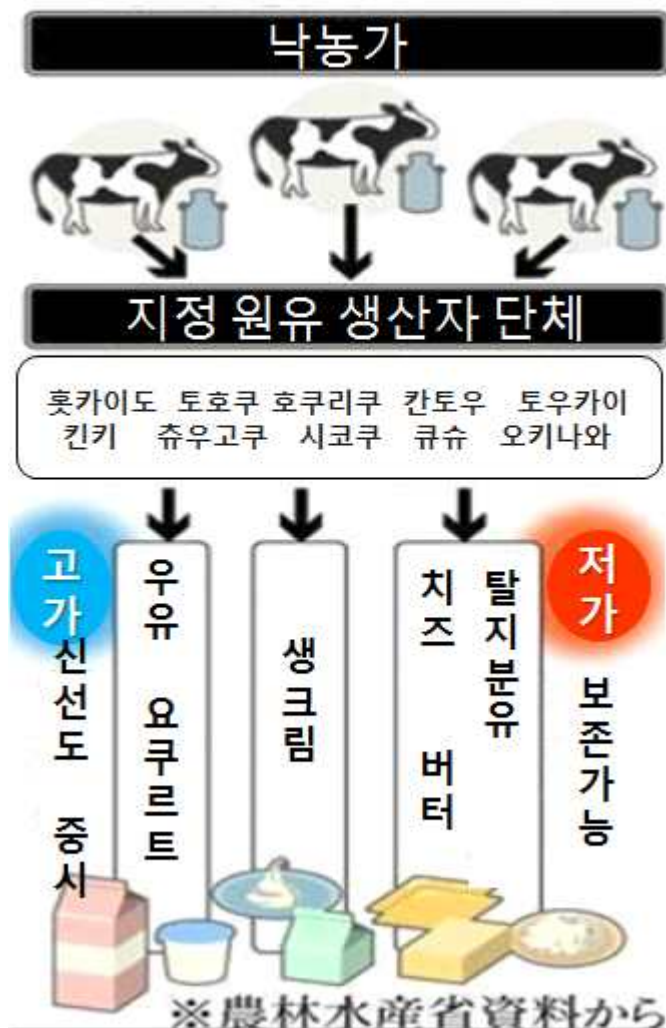
※ ‘세이프가드’란

국제 규범상의 개념은 ‘특정상품의 수입급증이 수입국의 전반적인 경제여건이나 국내 경쟁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또는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GATT 제19조에 근거하여 취하는 긴급수입제한조치’를 의미

- 추가 수입된 버터는 11월중 시장에 모두 유통된 것처럼 보이지만, 가격은 200람당 430엔전후로 여전히 전년 수준보다 5~6 %높음
- 최근 버터의 원료인 원유의 생산 감소로 버터 부족이 계속 되고 있음
- 농수산축산의 통계에 따르면, ①낙동가의 고령화현상과 후계자 부족 ②젖소의 사료 가격상승에 따른 생산 기피로 인해 낙농가의 가구 수는 올해 2월 1일 현재 1만7700가구로 10년 전에 비해 3분의 2로 감소

- 1996년도(원유의 최대 생산년도)에는 약866만 톤이었으나 2013년도에는 약745만 톤으로 감소됨
- 낙농가에서 생산된 원유는 그 지역의 “지정원유생산자단체”(일본전국10개)가 유제품제조업체와 가격협상을 함
- 원유는 신선도가 요구되는 우유, 생크림, 치즈, 버터 등의 순으로 가공 생산되며 버터의 원유가격은 우유에 비해 30~40 %저렴
- 원유의 생산량 감소의 여파는 버터 생산 감소로 집중

[일본의 원유유통 이미지]



■ 유통의“전환기”

- 원유의 주요생산지인 홋카이도가 버터가공에서 우유가공을 증대한 것 또한 버터 공급 부족현상의 요인
- “농축산업진흥기구”에의하면 홋카이도는 도쿄나 오사카 등 대소비지로 부터 원거리이기에 버터 등 보전이 용이한 유제품으로 많이 공급되었으나, 전국적으로 원유 생산량감소의 영향으로 홋카이도에서도 우유가공의 비율을 증가함

(출처 : 산케이신문 12.3일자)

■ 시사점

- 우리 낙농업계도 고령화와 사료의 가격급등 등과 같은 재산성문제 및 공급 수요 불일치로 인한 시장가격혼란에 있어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외부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비할 수 있는 체질 개선이 필요